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PC(USA)는 한국전쟁 발발일과 일제강점기 해방일을 기억하며 한반도 기도와 묵상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분열의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치유, 화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12시 14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추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교회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기도 안내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USA)의 한국을 위한 기도 기간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https://pcusa.org/worship-with-us/yearbook/june-25-2026.

일곱째 주: 통일을 향한 소망

1945년 8월 15일은 35년간 이어졌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해방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곧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깊은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분단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격차, 그리고 서로 다른 이념은 여전히 통일을 가로막고 있지만, 화해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 줍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미가 4: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등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바꾸시고, 분열의 자리를 평화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게 품기를 바랍니다. 그 통일이 두려움이나 폭력,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빚어질 미래를 소망합시다. 그곳에는 정의가 꽃피고, 긍휼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며,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변함없는 평화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7주 기도 제목

1. 화해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에 기초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세워 주는 정의로운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3. 한반도의 통일이 정의와 긍휼, 그리고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표적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4. 북한과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억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힘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5. 교회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신실하게 증언하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LET'S ALL SET A PRAYER ALARM

THURSDAYS @12:14PM

WHY 12:14PM?

Let us come together in prayer, from near and far, every Thursday at 12:14 PM from June 25 to August 15. Hebrews 12:14 says, "Pursue peace with everyone, and the holiness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May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bring reconciliation, healing, and renew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broken world.

(818) 790-6708 La Cañada Presbyterian Church 626 Foothill Blvd, La Cañada CA